

“오픈AI도 흔들렸다”... AI 업계, ‘폐쇄형 독점’ 무너지나

샘 올트먼 “오픈소스 방향 전환 필요”
초저비용·고성능, 게임체인저 부상
MS·구글·메타, ‘AI 전략’ 재정비

오픈AI가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전략’ 전환 가능성을 공식 시사하면서, 그동안 폐쇄형 AI 모델 개발을 고수해 온 AI 업계에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래트 ‘뒤편지 물어봐’(AMA) 질의에서 “우리는 (오픈소스와 관련해) 역사의 잘못된 편에서 있었다”며 “개인적으로 다른 형태의 오픈소스 전략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케빈 웨일 오픈AI 최고제품책임자(CPO)도 “구형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오픈AI가 기존 폐쇄형 전략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켰다.

실제로 오픈AI는 지난 31일(현지시간) 추론 AI 모델 ‘o3’의 경량화 버전인 ‘o3 미니’를 무료로 공개했다.

o3 미니는 수학·과학·코딩 분야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며, 기존 모델인 ‘o



지난해 6월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열린 K-Startups meet OpenAI 행사에서 방한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스타트업과 글로벌 AI 기업간 협업 등에 대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1’보다 더 빠른 응답 속도와 높은 가성비를 자랑한다. 오픈AI에 따르면 ‘o3 미니’는 입력 토큰 100만개당 0.55달러, 출력 토큰 100만개당 4.40달러라는 낮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최고 수준의 추론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행보는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딥시크는 최근 초저비용·고성능 AI 모델 ‘R1’을 공개하며 AI 업계에 충격을 줬다. 특히 저비용으로 GPT-4 수준의 성

능을 구현해 AI 모델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실제로 딥시크가 개발한 AI 모델 ‘R1’을 두고 오픈AI·마이크로소프트(MS)·애플 등 미국 빅테크 경영진들이 ‘저비용 고효율’ 혁신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심지어 실리콘밸리의 대표 벤처투자자인 마크 앤드리슨은 “딥시크 R1은 내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놀랍고 인상적인 혁신 중 하나”라며 “AI 분야의 스푸트니크 모멘트”라고 극찬했다.

스푸트니크 모멘트는 기술우위를 점하던 국가가 후발 주자의 예상치 못한 도전에 충격을 받는 순간으로, 1957년 옛 소련이 미국보다 먼저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한 데서 유래했다.

다만, 샘 올트먼 CEO는 지난해 온라인 간담회에서 “내년(2025년) 1월 말 o3 미니를 먼저 출시하고 곧이어 o3도 대중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즉, 이번 공개는 예정된 일정이었던 점에서 딥시크의 등장이 직접적인

요인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 세계 AI 업계에서는 o3 미니 출시가 ‘딥시크 쇼크’와 연관이 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 IT 매체 테크크런치는 “오픈AI가 고급 AI 모델의 접근성을 확대하면서도 딥시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판단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금까지 오픈AI와 구글 등은 폐쇄형 AI 모델을 기반으로 시장을 장악해왔다. 천문학적인 자본을 투입해 AI 모델을 개발하고, 독점적인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딥시크와 메타 등 후발 주자들이 오픈소스 모델을 내세워 단기간에 AI 성능을 끌어올리면서 시장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AI 산업의 미래는 오픈소스와 폐쇄형 모델 간 경쟁 구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오픈소스 모델의 효율성이 입증되면, 후발 주자들도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고성능 AI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 반면, 폐쇄형 모델이 지속적으로 우위를 점한다면 AI 시장은 소수의 대기업이 독점하는 구조로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가 나온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회의실 예약도 척척”... SKT, ‘에이닷 비즈’ 도입 가속화

사내 AI CBT 도입... 300명 대상
일정 관리 등 ‘업무 자동화’ 지원
개선 과정 거쳐 상반기 내 상용화

SK텔레콤이 자사 AI(인공지능) 에이전트인 ‘에이닷 비즈(A. Biz)’를 실제 업무에 본격 도입했다.

SK텔레콤은 SK C&C와 공동 개발 중인 업무용 AI 에이전트 에이닷 비즈의 사내 비공개 베타 테스트(CBT)를 지난달 31일부터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SK텔레콤과 SK C&C 구성원 300여명이다.

에이닷 비즈는 SK의 기업대상(B2B) AI 핵심 솔루션이다. AI 기술을 바탕으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생산성을 제고하도록 돕는다.

SK텔레콤은 이번 CBT를 통해 일상적 공통 업무를 대신하는 에이닷 비즈,



SKT 구성원이 에이닷 비즈의 앱/웹 화면을 보고 업무를 하는 모습. /SKT

그리고 전문 업무에 특화된 에이닷 비즈 ‘프로페셔널’ 등 두 가지 버전의 AI 에이전트 기능을 테스트하며 본격적인 시장 진출을 준비할 예정이다.

우선 에이닷 비즈는 사내·외 정보 검색과 회의록 작성, 일정관리 및 조율, 회의실 예약, IT 헬프데스크 등 일상 업무에서 자주 쓰는 기능을 제공한다.

구성원이 도움이 필요한 업무 내용을 에이닷 비즈 채팅창에 입력하면 답변 뿐만 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업무 실행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내일 오전 사용 가능한 회의실을 확인해줘’라고 명령할 경우, 구성원의 현재 좌석·일정 등을 고려해 복수의 회의실을 조회하고 예약까지 해주는 식이다. 회의 초대와 참석자 일정 반영도 채팅만으로 해결된다.

에이닷 비즈가 일상적이고 범용적 업무를 돕는다면, 에이닷 비즈 프로페셔널은 법무·세무·PR 등 전문 업무 영역에 특화된 맞춤형 업무 기능을 지원한다.

특정 이슈에 대한 기존 자료를 검토해 법률 자문을 제공(법무)하거나, 회사와 관련한 뉴스를 모니터링하고 정

리(PR)하는 등 다양한 전문적 기능을 통해 구성원이 AI의 실질적 활용을 높이도록 한다.

에이닷 비즈는 SK텔레콤의 자체 거대언어모델(LLM) ‘에이닷엑스(A. X)’, 오픈 AI의 챗GPT 등 다양한 언어 모델을 활용해 성능을 고도화해 갈 예정이다.

SK텔레콤은 품질 및 사용성 향상을 위해 사용자 환경(UI)·경험(UX) 전문가 중심의 TF(테스크포스)를 꾸리기로 했다. 이번 비공개 베타 과정에서 수집되는 다양한 구성원 피드백을 반영해 품질 이슈 등을 개선해나간다.

SK텔레콤은 이같은 개선 과정을 거쳐 올해 상반기 내 에이닷 비즈 상용화 버전을 정식 출시하고 21개 SK 주요 멤버사에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카카오페이지 ‘초신작 프로젝트’ 공개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3일 카카오페이지 2월 ‘초신작 프로젝트’ 라인업을 공개했다. 카카오페이지 ‘초신작 프로젝트’는 매달 엄선된 신작 웹소설 2편을 이용자 열람 이벤트와 함께 선보이는 프로젝트다. 이달 초신작 프로젝트 작품은 이린비 작가의 ‘죽국의 왕자를 기사로 들이면’과 은밀히 작가의 ‘전설급 네크로맨서의 2회차’ 2편으로 카카오페이지 론칭 후 각각 로맨스 판타지와 판타지 장르에서 1위를 기록했던 흥행작 집필 작가들이다.

카카오페이지는 이번 2월 ‘초신작’ 작품 론칭 기념으로 두 작품을 감상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1만원의 캐시 뽑기권을 제공하는 ‘초신작 아카이빙’ 이벤트를 전개한다.

/김서현 기자

“모르는 문제 사진 찍으면 AI가 5초만에 답” 카카오펀터프라이즈, 이원주 신임대표 내정

KT, ‘판다’ 서비스 2종 선보여

KT는 전 세계 9800만명의 학생이 이용하는 인공지능(AI) 학습 플랫폼 ‘판다’ 구독 서비스 2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판다’는 KT가 1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한 국내 벤처기업 매스프레소의 대표 서비스다.

판다는 광학 문자 인식(OCR) 기술을 활용해 모르는 문제를 사진으로 촬영하면 AI가 5초 안에 풀이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학습 플랫폼이다. 단계별

풀이와 힌트 제공, 개별 학생 맞춤형 설명 등 다양한 학습 방식을 지원하며, AI가 제시하는 추가 질문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지역 ‘1타 강사’와 명문대 대학생 등 검증된 교육자들이 1200원 이상의 주요 문제집과 모의고사에 대한 상세한 동영상 풀이를 제공한다.

KT는 ▲판다 프리미엄(월 1만8500원) ▲판다 프리미엄 라이트(월 1만1000원) 2종을 구독 부가서비스로 제공한다.

/구남영 기자

디케이테크인 대표이사 겸직 예정

카카오펀터프라이즈가 3일 카카오펀터프라이즈 IT 솔루션 개발사 디케이테크인 이원주 대표(사진)를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했다. 이 내정자는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공식 선임 후 카카오펀터프라이즈와 디케이테크인 대표이사를 겸직할 예정이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출신인 이원주 내정자는 2008년 카카오에 합류한 후 2015년 디케이테크인 대표로 선임됐다. B2B IT 및 AI 인프라 분야에서 폭



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쌓으며, 디케이테크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주도해왔다.

이 내정자가 이끄는 디케이테크인은 지난해 1월 카카오펀터프라이즈 자회사 ‘케이이피’를 흡수합병하며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했다. 이 내정자는 ‘카카오워크’, ‘카카오 i’ 등 케이이피의 6개 핵심 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김서현 기자 seoh@

아임웹 온라인 교육 확대개편 “회원 누구나 무료 수강”

웹사이트 구축 플랫폼 ‘아임웹’이 초보 사업자부터 성장 기업까지 폭넓은 고객층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확대 개편하며 고객 지원을 본격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편에서는 맞춤형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커리큘럼을 확장하는데 중점을 뒀다. 기존 사전 신청제에서 벗어나 2월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매주 평일 오후 5시에 정기적으로 진행된다. 아임웹 회원이라면 누구나 홈페이지 ‘온라인 교육’ 탭에서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이혜민 기자